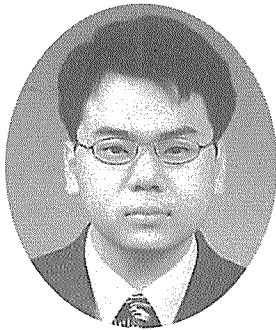


따라서 배우는 인터넷 이야기 (4)

- 또하나의 이름 「전자우편주소」



글 / 류지창
(주)데이콤 천리안사업단

로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하며 이 준비물만 갖추면 바로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를 명함에 새겨넣을 수도 있다.

첫번째 준비물은 바로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이다. 전자우편 주소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혹은 학교에서 발급을 해주는지 문의해 보는 것이다. 만약 이 방법이 안되면 국내의 PC통신에 가입하면 됩니다. PC통신을 이용하면 자신의 통신ID가 바로 전자우편 주소가 된다. 예를들어서 데이콤의 천리안 서비스에 harp라는 I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harp@chollian.net이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가 된다. 세번째 방법은 무료로 전자우편 주소를 발급해 주는 곳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웹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 등을 통해서 전자우편을 볼 수 있다. 국내에서 무료로 전자우편 주소를 발급해 주는 대표적인 곳은 한메일(<http://www.hanmail.net>)과 네띠앙(<http://www.netian.com>)이 있으며 웹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면 즉시 전자우편 주소가 발급된다.

최 근에 만난 사람들의 명함들을 꺼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명함에 적혀있는 내용은 대개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핸드폰 등인데 간혹 어떤 사람들의 명함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하나 들어 있다.

E-mail: harp@ chollian.net

이 한줄이 바로 명함의 주인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네티즌임을 밝혀주는 전자우편 주소(E-mail Address)이다. 대개 인터넷을 쓴다고 말할 때는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자료 열람을 하는 서비스인 월드와이드웹을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자우편도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서비스이다.

전자우편이란 이름 그대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서

두번째 준비물은 전자우편 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이다.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커뮤니케이터에 전자우편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커뮤니케이터의 메뉴중에서 Communicator를 선택한 후 Messenger를 클릭하면 전자우편 이용 상태로 바뀌게 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이미 익스플로러 설치시에 같이 설치되어 있을 것이다. 한글 4.01 버전의 경우 아웃룩 익스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3.0 대의 버전의 경우에는 인터넷 메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이용해도 좋다.

준비물을 갖추었으면 자신의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시킨 상태, 다시말하면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전자우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편지쓰기와 읽기를 할 수 있다.

전자우편을 이용하면 기존의 방법인 편지 혹은 팩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한 점으로 많은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국제간의 문서 전송을 저렴한 비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미국으로 A4 10장 분량의 문서를 팩스로 보낸다면 상당한 금액의 국제전화 요금이 나오지만 인터넷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프린트하기 전의 상태인 워드프로세서 파일로 전송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문서를 수신한 사람들도 파일로 받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전자우편을 이용하면 동시에 여러사람에게 같은 문서를 보낼 수 있고 자신이 사무실에 있지 않더라도 동료들과 전자우편을 사용하여 의견을 교환해 가며 맡은 일을 처리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도 높여주게 된다. 따라서 향후 2-3년안에 전자우편을 이용한 공동 작업 수행능력이 업무수행 능력을 대표하는 지표로 자리잡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젠 많은 기업에서 외국과의 문서 전달이 전자우편을 이용한다. 이에 따라 전화의 수요가 줄고 있다고 한다. 98년 6월 23일자 한국경

제신문의 기사를 보면 올해 들어 전화역사 1백년만에 최초로 가입자가 감소추세이며, 문서통신 수단으로 각광받아온 팩시밀리도 이미 퇴장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 추세의 원인이 바로 이동전화와 인터넷 전자우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제는 전화를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것은 직장인의 기본적인 능력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전자우편에 친숙해 지기 위해서는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해 보는 것이 좋다. 메일링 리스트란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들간에 주고받은 편지를 가입자 전원에게 배달해 주는 일종의 전자우편을 이용한 동호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메일링 리스트가 있는데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하여 <http://www.liszt.com/>에 접속하면 이들 메일링 리스트의 목록과 가입하는 방법을 열람 및 검색할 수 있다.

또하나 빨리 전자우편 매니아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혹은 매일 저녁 컴퓨터에 앉자마자 자신에게 도착한 메일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자우편 주소를 알려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에게 처음 배달된 편지를 읽어보는 흥분은 쉽게 잊지 못할 것이다.

전자우편에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외국으로 편지를 보낼 때는 영문으로 편지를 써서보내는 것이 좋다는 점이다. 한글은 8비트를 사용하는 외국의 컴퓨터들이 한글 편지를 다룰 때 7비트를 사용하는 영문 알파벳으로 취급하여 마지막 비트를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삭제해 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이른바 “한글이 깨지는” 편지가 배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의 컴퓨터 간에 편지를 주고 받을 때는 이러한 문제는 거의 없다.